

AI페퍼스, 안방서 10승·30점 고지 밟는다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제축은행 AI페퍼스가 안방에서 두 자릿수 승수 달성을 노린다.

AI페퍼스는 4일 오후 7시 광주페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현대건설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 1일 AI페퍼스는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22-25 25-22 19-25 22-25)으로 패했다. 직전 경기에서 승리한 뒤 올스타 휴식기로 재충전을 마친 AI페퍼스는 이날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연승을 노렸으나 아쉽게 실패했다. 그 결과 9승 16패 승점 27점으로 리그 6위에 머물렀다.

현재 V리그 여자부는 하위권을 제외하면 훈련 양상이다. 1위 한국도로공사(승점 52점)는 아직 독주하고 있지만, 2위 흥국생명(승점 48점)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3위 현대건설(승점 45점) 역시 언제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4위 IBK기업은행(승점 39점)과 5위 GS칼텍스(승점 38점)는 1점차 접전을 벌이면서 순위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AI페퍼스는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최하위 정관장(18점)은 따돌렸으나 중위권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결국 남아있던 봄바구 불씨 또한 사실상 사라졌다.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

AI페퍼스는 지난 시즌 구단 역대 최다승과 최다승점(11승 25패·승점 35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창단 이후 매년 한 자릿수 승수에 그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올해는 그 이상을 넘볼 수 있는 상황이다.

리그 종료까지 남은 11경기에서 3승을 더 따낸다면 역대 최다승을 경신할 수 있다. 승

점도 9점만 추가하면 된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치다.

당장은 시즌 10승과 승점 30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기만 하면 된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3일 경기 전 기준 AI페퍼스는 득점 6위(2068점)에 머무르고 있다. 승부처 상황에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블로킹(7위·세트당 2.095개) 능력 역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매년 약점으로 꼽혀왔던 서브와 리시

는 셈이다.

AI페퍼스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브, 리시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번 경기 상대인 현대건설은 현재 15승 10패 승점 45점으로 리그 3위에 자리하고 있다.

AI페퍼스 입장에서는 반가운 상대다. 올 시즌 유독 현대건설에게 강했기 때문이다.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3승 1패로 압도적 우위에 있다. 맞대결 시 공격지표도 좋았다. 공격성공률이 43.63%로 현대건설(36.91%)을 압도했다.

이외에 오픈공격(35.35%), 후위공격(50.85%) 등에서도 상대(각각 26.42%,

오늘 오후 7시 광주페스타디움서 현대건설전 시즌 상대전적 3승 1패 우위…리시브효율 관건

브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

AI페퍼스는 현재 서브 6위(시도 1778회·성공 94회·세트당 0.989개)에 위치해있다.

서브 공략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상대의 리시브가 수월해진다. 결국 다양한 투트를 활용하는 상대 공격을 막기에 급급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서브 범실은 200개로 7개 구단 중 가장 많다. 경기마다 발복을 잡히는 요인이다.

리시브 순위는 6위로 리시브 효율이 23.35%(시도 1263회·정확 573회)에 그친다. 리시브가 훈련으로 공격로가 단순해지고 결국 막힐 가능성이 높다. 실제 AI페퍼스는 날개 쪽에서의 득점이 취약하다. 수비가 받쳐 주지 못하다 보니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

34.33%) 보다 뛰어났다.

더욱이 현대건설은 최근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윤이 고질적인 무릎 부상과 피로골절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주포 카리도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 베테랑 앙효진의 체력 관리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완전체 전력을 구성할 수 없다. AI페퍼스가 승수를 추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갈 길이 비쁜 AI페퍼스가 현대건설을 꺾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1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AI페퍼스 선수단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광주에 연고를 둔 OK금융그룹은 OK 웃맨리비단이 경상남도 거제에서 2026년 두 번째 동계 전지훈련에 나섰다.
사진제공=OK금융그룹

OK 웃맨리비단, 두 번째 동계 전훈…기술 훈련 본격화

13일까지 거제서 고려대와 합동훈련 등 실전 감각 강화

광주에 연고를 둔 OK금융그룹은 OK 웃맨리비단이 경남도 거제에서 2026년 두 번째 동계 전지훈련에 나섰다.

이번 전지훈련은 지난 1월 전남도 해남에서 진행한 1차 전지훈련에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 지난 2일부터 시작,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웃맨리비단은 1차 전지훈련에서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기본기 훈련을 병행하며 몸 만들기와 컨디션 회복에 집중했다.

이번 2차 전지훈련에서는 전술·전략 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조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전 감각을 강화해 올해 상반기 실업 력비 리그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훈련 기간에는 고려대학교 력비부와의 합동훈련도 예정돼 있다. 합동훈련과 함께 연습 경기도 치르며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웃맨리비단은 단계별로 구성된 훈련 로드맵을 바탕으로 시즌 준비 완성도를 높이고, 올해 상반기 실업 력비 리그 우승에 도전한다. 두 차례 국내 전지훈련을 마친 뒤에는 해외 전지훈련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팀 전반의 기량을 한층 끌어올리며 최종 점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웃맨리비단은 2023년 실업팀 전원 이후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꾸준히 성장하며, 기존 실업팀들과 견줘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경험과 전력을 쌓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코칭스태프 보강으로 팀 운영의 내실을 다졌다. 올해는 고졸 유망주 영입을 통해 장기적인 전력 구축에도 힘

을 싣고 있다.

오영길 웃맨리비단 감독은 “지난 1차 국내 전지훈련에 이어 이번 2차 전지훈련까지 지원해 주신 최윤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팀 전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고, 시즌 목표를 향해 단계별 준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윤 회장은 제24대 대한럭비협회장을 역임했으며, 금융사 최초의 력비 실업구단인 ‘웃맨리비단’ 정단을 비롯해 력비선수 특별채용, 중·고교 력비부 및 국가대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력비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또 웃맨리비단은 지난해 8월 중학교 력비 선수를 대상으로 ‘OK 웃맨 력비 아카데미’를 개최해 유소년 육성 기반을 다졌다. 지난 1월 3일에는 ‘제2회 OK 웃맨 력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력비 문화의 상징적 무대인 ‘하나조노고교 력비 전국대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주)비온시이노베이터, 광주장애인체육회에 300만원 기탁

장애인 체육 발전 후원금 전달

(주)비온시이노베이터가 지속 가능한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일 시장애인체육센터 종회의실에서 김용수 (주)비온시이노베이터 대표이사로부터 광주장애인체육 발전후원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현성 사무처장, 정선교 광주시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 총무위원장, 김용수 (주)비온시이노베이터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용수 대표이사는 장애인체육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분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지역 사회공헌에 참여하고자 이번 후원을 제안했다.

김용수 (주)비온시이노베이터 대표이사는 “장애인체육은 개인의 건강과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후원이 광주지역 장애인체육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정환 광주육상연맹 부회장 ‘지역 발전 유공’ 시장 표창

광주 육상 꿈나무 육성·저변 확대 힘써 탈북민 지원·지역 조경 발전 등 공로도

이정환 광주육상연맹 부회장이 육상 발전과 지역 조경 개선에 혼신한 공로로 광주시장 표장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3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지역사회 발전 유공 시민 표창 수여식’에서 따뜻한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 ‘숨은 주인공’으로 수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전수한 이번 시상식은 평소 남다른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실천을 이어온 민간인 유공자 13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환 부회장은 육상 발전과 지역 조경에 혼신하며 ‘시민의 모범’이 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시장 표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부회장은 광주시육상연맹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광주 지역 육상 꿈나무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묵묵히 지원해 왔다. 또한, 평소 탈북민들의 사회적 정착을 돋는 지원 활동에 앞장서며 그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조경수협회 회원으로서 식목일 나무나 뉘주기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조경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온 인물로 인정됐다.

이정환 광주육상연맹 부회장은 “광주 육상 꿈



무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는데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 기쁘다. 더 모범이 돼야겠다는 생각뿐이다”면서 “앞으로도 제자리를 지키며 더 따뜻한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총 13명의 민간인이 수상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서린·윤성주·양주호·신재원·김성광·류미선·송미정·오로라·차시원·박정우·김재용·김연종씨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등산로 청소정비와 소상공인 보증지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 등에 앞장서고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PGA 투어 피닉스오픈 내일 개막…김시우 우승 도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6시즌 네 번째 대회인 WM 피닉스오픈(총상금 960만달러)이 5일 막을 올린다.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초데일의 TPC 스코초데일 스타디움코스(파71·7261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어느 골프 대회와 달리 음주와 응원, 야유 등이 허용된다.

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 대회를 ‘피닉스 오픈’이 아닌 ‘피플스 오픈’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그만큼 괜 친화적이고 인기 있는 대회라고 소개했다. 특히 16번홀(파3) 주위에 설치된 관람대에서는 티샷 결과에 따라 환호와 야유가 특히 유별나기로 유명하다.

올해 대회에는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 10명, 세계 랭킹 20위 내 선수 11명 등 ‘빅 네임’들이 대거 출전해 우승 경쟁을 벌인다. 세계 랭킹 스코티 세플러(미국)는 지난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 이후 두 번째 대회에 출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김성현, 김주형, 이승택이 출전한다.

주목할 선수는 역시 김시우다. 김시우는 올해 앞서 열린 대회에서 소니오픈 공동 11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6위, 파마스 인슈어런스오픈 공동 2위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차른 12차례 라운드 중 60대 타수를 기록하지 못한 것이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다.

연합뉴스